

# 농촌마을의 살림집 좌향(坐向)에 관한 연구

## The Lay of the Houses in the Rural Villag

리 신 호\* · 오 무 영\*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Rhee, Shin-Ho\* · Oh, Moo Young\*

\*Dep t of Agricultural Eng., Chungbuk Nat l Univ.

### ABSTRACT

The meaning of the lay of the houses - traditional dwellings- was discussed and its application in the rural village was surveyed. The azimuth of the houses is considered to the direction of a sun and the house facing south is best. The houses are built with a low and comfortable hill for a background. The direction of the houses, which way the center of a house looks, usually looks the 70-80% point of a ridge line. The civil surroundings that the houses never look each other in the face and three houses are not sit side by side are good. The two rural villages surveyed were placed along the traditional custom

#### I. 서론

사람이 소우주(小宇宙)이고, 집은 사람을 담고 있으니 우주의 섭리가 집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자연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곳에 집터를 잡고 좋은 날을 받아 상량(上梁)하고 입주(入住)하였던 것이다. 집의 좌향, 칸 수, 기둥 수, 채의 배치, 지붕 모양 등 어느 것 하나도 자연과 조화되지 않음이 없고, 수리(數理)가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집터와 좌향(坐向)의 선택은 원래 민중생활의 필요성에서 하게 되었는데 입지조건에 알맞게 적용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김, 1992).

집터는 직업적인 지사(地師)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 나온 양택론(陽宅論)에 준거(準據)하여 복지(卜地)를 찾았고, 자연환경을 살피고 인문환경을 고려하여 앉히게 된다. 방위(方位)는 단순히 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로서 남쪽이나 동쪽으로 잡았는데, 근대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좌향은 건물이 등을 지고 앉은 좌(坐)와 바라보는 향(向)을 합해서 말한다. 좌란 기대는 것이므로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도록 하며, 향은 “집안의 축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집의 중심 상이며 보는 이의 심상(心想)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형적 요소이다.

전통주거에서 민가(民家)와 반가(班家)로 구분하는 경우(조, 1980), 농촌의 살림집은 민가를 대표하는 것인데, 지금은 전통적인 주거 방식으로 짓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옛날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집의 좌향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농촌의 살림집 좌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 II. 살림집의 좌향론

살림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집터로서 복지를 고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집의 좌향이다. 좌향은 집을 어떻게 앉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집 주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졌다. 「전생록(全生錄)」에 태주(宅主)의 사주에 따라 집의 좌향을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신, 1995).

집을 앉히는 방법은 자연환경으로서 좌위(坐位), 향위(向位), 방위(方位)를 살펴며, 인문환경은 다른 집과의 관계를 고려한다(김, 1992).

방위는 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로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잡아야 된다(陽明學)는 생각에서 남향과 동향이 이상향이라는 의식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다.

「전가보(傳家寶)」에는 “살림집은 남향을 으뜸으로 하고 동향하는 것은 버금으로 한다. 북향으로 한다든가 서북향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여 남향, 동향을 이상으로 보았다(임원경제지에 인용).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에는 “사는 집의 방실(房室)은 반드시 남향하여 양기를 받아야 한다. 집이 남향이거나 동향이거나를 막론하고 양기는 사람이 사는 것에 직결되므로 방의 창은 모두 남쪽으로 열어야 한다”고 쓰고 있어 남향을 중시하고 있다(임원경제지에 인용).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상택지(相宅志), 점기(占基)에 보면 살만한 집(卜居)은 북쪽으로 앉고 남쪽으로 면해야 가장 좋다고 하였다(卜居必坐坎而面). 「산림경제(山林經濟)」북거(卜居)의 “양거의 광택양기(陽居宜 光澤陽氣)…”한 것은 남향이 좋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남향을 으뜸으로 친 것은 음양사상에서 양기를 많이 받아 들인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양지 바른 집에서는 질병이 적

다는 것을 옛날부터 몸소 느껴온 것에 따라 남향한 집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근대의 과학으로 보아도 합리적인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남쪽에서 약간 동쪽이나 서쪽으로 방위를 튼 것은 정남향집이 겨울에는 좋지만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남향한다는 것은 집의 주된 배치(중심)가 그러한 축에서 설정된다는 뜻이다.

좌위(坐位)는 집이 등을 지고 앉은 위치를 말하고, 향위(向位)는 집이 바라보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좁게는 이를 좌향(坐向)이라고 한다. 좌와 향은 서로 직교하게 되지만, 곱패집(곱은자집)의 경우 좌와 향을 따로 볼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좌(坐)는 기대는 것이므로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으므로 뒷산은 위협을 주지 않는 나지막한 토형(土形)이 가장 좋다. 산의 경사가 완만하면 집을 산자락에 바짝 붙이고, 급하면 산자락에서 떨어지게 한다. 좌(청룡), 우(백호)가 밋밋해서 공간감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산기슭으로 올라가는데 산등보다는 산골짜기 양가에 짓는다. 이 경우 근대과학으로 해석하면, 산사태 또는 홍수로부터 집을 보호하면서 바람을 적당히 막아주도록 한 것이다.

향(向)은 집안의 중심축(안방, 대청 등)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집의 중심상이며 보는 이의 마음형(心性)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형적 요소이다. 첫째는 앞이 확 막히지 않고 트이는 것이 좋으나 뽕 뚫려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한 거리에서 슬며시 막아주는 것이 좋다. 산지나 분지 등의 막힌 좁은 골짜기에서는 트인 공간인 물이 흘러가는 곳(水口)으로 향하는 게 보통이고, 들판의 너른 공간에서는 멋있는 안산(案山)이나 조산(祖山)을 바라보게 하였다. 다음은 앞에 있는 산의 봉우리를 약간 빗겨나게 바라보도록 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산의 모양이 젓 봉우리 같이 예뻐서 직접 바라보아도 부담이 없을 경우는 산봉우리를 바라보기도 하나 집안사람의 심성이 너무 상향지향성(上向指向性)을 지닌다고 하여 피하였다.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피하였는데, 이는 음지를 지향하는 마음을 방지하도록 배려한 것이고, 옛보는 산이 있으면 이 또한 나쁜 심성을 지닌다고 하여 피하였다.

「임원경제지」의 상택지, 점기에는 “안산은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것을 가장 좋다(凡宅左右前砂尖秀端圓科第)”고 하

였다. 안산이나 조산은 사람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집의 중심축에서 바라보면 앞산의 7, 8부 능선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사는 심성이 형성되도록 배려하였던 것이다. 『산림경제』복거에서는 “집에 오는 사람이 길을 따라 들어갈 때 본산(本山)과 좌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置此輪圖於中堂 先審本山坐向 然後定門及路)”고 하였다. 여기서 본산은 뒷산을 의미하는데 집의 앞한 좌(坐)와 어울려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집에 대한 인상을 심어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바람이 사계절 부는 방향도 고려하여 바람의 생기(生氣)를 담도록 하였다(장풍, 藏風).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집을 짓다보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모든 집이 자연의 지세에 맞는 생태적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마을이 평지로 내려오면 여러 집들이 동시에 같은 조건을 가지게 되어 좌위, 향위, 방위가 같게 되므로 다른 집과의 관계(인문환경)를 고려하여 집을 짓게 된다.

『산림경제』복거에 보면 “집의 두 문이 서로 마주 대하게(宅戶二門)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문이 마주보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을 앞 뒤 한 축으로 동일하게 배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가필용(居家必用)』에서는 “세 문이 서로 겨루지 않는다(三門莫相對)”라고 했는데 이는 횡으로 나란히 배치되는 집이 두 집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3채의 집이 나란히 놓이면 가운데집은 해롭다는 생각과 뜻이 통한다. 즉 마을이라는 공간에 집을 배치하는 경우 인위적인 기하학적 질서보다는, 하늘에 기러기나 오리가 날아가는 모습처럼 자연적인 생태학적 질서를 유지하라고 한 것이다.

대문이 서로 마주보면 집을 드나들 적에 급작스럽게 마주치는 눈길이 어색하여 항상 긴장하게 되므로 좋지 않을 것이며, 집이 앞 뒤로 나란히 앉아 있으면 서로 감싸주지 못하고 바람의 생기가 흘러가므로 좋지 않다. 집 3채가 횡으로 나란히 있으면, 가운데 있는 집은 포위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옆에서 오는 바람은 그대로 빠져나가므로 바람의 생기를 지키지 못하여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장풍(藏風)이 되어야, 바람이 불어오면 부서져서 잦아드는 효과를 발휘하고, 바람이 잦아들어야 마을이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게 된다.

집터를 포함하여 좌향의 결정은 음양오행설, 도참설 등에

따르는 수도 많았다. 풍수지리(風水地理)를 기준으로 한 좌향은 집을 앉히는 우리의 전통과학이므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과학의 지리학은 땅을 지형, 인문, 환경, 생태, 심리 등으로 세분하여 보지만, 풍수지리는 땅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지리학이므로 전통과학의 한 자락이다.

좌향을 잡을 때는 패철(佩鐵)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현대의 나침반(羅針盤)과는 눈금이 다르다. 나침반은 36방향으로 세분되어 각도로 표시되어 있고 자침이 눈금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다. 패철은 360도의 원반에 6각을 정하고 그에 따라 12방향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고, 자침은 눈금 좌우에 설정한 간격, 즉 면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자좌오향(子坐午向)이라고 하면, 정북에서 정남을 바라다 본 선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북동에서 남남서, 북북서에서 남남동까지 포함된 면을 지시하므로 향이 넓게 잡히게 되어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

### Ⅲ. 조사마을과 방법

#### 1. 조사 대상 마을

농촌마을의 살림집 좌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본답사를 한 후, 풍수적 기본 질서를 갖추고 전통양식이 아닌 형태로 지은 집이 많지 않은 작은 규모의 마을을 선택하였다.

조사 마을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원반 마을과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1리 갈마을 마을을 조사하였다.

원반마을은 집중되어 있는 15가구 중 3가구는 무너져 있고, 농촌형 표준주택(1채)이 거의 들어서 있지 않아 옛날의 마을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뒷산은 나지막한 토형으로 되어 있고, 마을 앞으로 어느 정도의 들이 있고, 칠보천이 흘러가고, 앞 산 대장봉은 안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그림1)참조.

갈마을 마을은 21가구 중 농촌형 표준주택이 3채 있고, 마을 뒷산은 약간 경사가 있고, 마을 앞에 들이 있고 감천이 흘러가며 국사봉 산줄기가 안산 역할을 하고 있다.

#### 2. 조사 방법

마을을 직접 답사하여 가구 당 본체의 방위, 좌위, 향위 등을 조사하였다.

방위는 본체의 좌우 수평축과 직교하는 방향을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위각을 측정하였다. 방위각은 자북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각이다.

좌위는 집 앞에서 보아 뒷산의 형국상 위치를 파악하였는데, 형국은 마을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향위는 집의 중심축이 바라보는 위치를 산봉우리, 7,8부 능선, 3,4부 능선, 골짜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시기는 서기 2000년 6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다.

### III. 결과와 고찰

원반 마을의 본산(本山)인 뒷산은 배부른 소가 누운 형국(와우형, 臥牛形)을 하고 있어 나지막한 토형이므로 집의 좌위를 잡기 좋은 경우이다. 조사가구 13가구 중 9가구가 배를 등지고 좌위를 잡았고, 엉덩이를 등진 좌위가 3가구로 12가구가 편안한 좌위로 잡고 있다(그림 1)참조. 판벽널조립주택인 1가구만 엉덩이에서 꼬리로 나가는 부분을 좌위로 잡아 다소 불안한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그림 1)의 9번 집, 근래에 새로 지으면서 집터 모양만 보고 집을 앉힌 것으로 보인다. 갈마을 마을은 총 21가구를 조사하였는데(그림 2) 참조, 뒷산이 물을 마시는 용머리 형국(용두음수형, 龍頭飲水形)으로 머리 부분인 가운데는 경사가 조금 있고 살림집은 그 앞에 대부분 모여 있다. 머리를 등진 좌위가 18가구, 발 부분이 3가구, 기타 골짜기를 등진 집은 없어지거나 쓰지 않고 있었다. 골짜기를 등진 경우, 집 앞에서 보면 본산이 깊숙하여 허해 보였다.

집의 방위를 살펴보면, 원반 마을은 오향(午向: 방위각  $165^{\circ} \sim 195^{\circ}$ )이 9가구로 남향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사향(巳向: 방위각  $135^{\circ} \sim 165^{\circ}$ )인 집이 3가구인데, 남동향이 집의 방위이고, 미향(未向: 방위각  $195^{\circ} \sim 235^{\circ}$ ) 즉, 남서향이 1가구이다(표1). 갈마을 마을은 오향 6가구, 남동향인 사향이 11가구와 진향(辰向  $105^{\circ} \sim 135^{\circ}$ )이 2가구, 남서향인 미향 2가구 등이었다(표2). 집의 방위는 남쪽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동쪽, 서쪽이었다.

바라보는 곳, 즉 向位는 원반 마을의 경우 판벽널조립주택 1가구를 제외한 12가구 모두 7,8부 능선이었고, 갈마을 마을은 18가구가 산의 7,8부 능선인데 그 중 8가구는 능선의 골을 바라보았고, 2가구는 3,4부 능선이었다. 원반 마을의 판벽널조립주택과 갈마을의 조적식 슬래브집 1가구는 산의 봉우리를 바라보도록 向을 잡고 있었다.

좌위, 방위, 향위 등 자연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형의 생긴 모습에 따라 각 마을에서 각 집 1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적으로 해운 살림집 앉히기에 잘 준거하여 집을 지었다. 판벽널조립주택은 집을 앉힐 때 좌위와 향위는 생각하지 않고, 근대 과학에서 강조하는 방위만 생각하고 지은 집으로 보인다.

인문 환경으로서 두 문이 마주보지 않고 세 집이 나란히 앉지 않는다는 원칙은 조사 마을 모두 잘 지켜져 있었다(그림1)참조.

조사 마을은 집 앉히는 전통 방법을 잘 지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언뜻 바라보면 무질서하게 앉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법칙 아래서 완전한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

### IV. 결론

살림집의 좌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풍수적 기본질서를 갖춘 작은 규모의 두 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살림집의 좌향은 좌위와 향위, 방위 등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서 집 주변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여도 잘 맞는다.
2. 방위는 해에 따라 집의 방향이 결정되는 요소로서 남향이 으뜸인데, 조사 마을에서도 남향(午向)이 가장 많았다.
3. 좌위는 집이 등을 지고 앉은 모습으로서 나지막한 토형의 뒷산(本山)을 잘 이용하여 집이 앉아 있었다.
4. 향위는 집의 중심 축에서 바라보는 위치로서 중용된 삶을 영위하도록 산봉우리를 빗겨나게 바라보도록 하였

는데, 조사 마을에서는 근래에 새로 지은 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들이 7, 8부 능선을 향하고 있었다.

5. 인문 환경은 집 주변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으로, 두 문이 마주보지 않고 세 집이 나란히 앉지 않는 것이 좋은데, 조사 마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다.
6. 조사 마을의 살림집들은 전통적인 법칙 아래서 완전한 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은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이루므로, 앞으로 마을의 여러 형태에 따라 적용된 좌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7. 이 연구는 살림집의 배치에 전통 사상을 적용한 근거를 보여 줌으로서, 농촌 문화마을 설계를 할 때 자연 생태적인 구획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參考文獻

1. 김홍식, 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2. 서유구, 1967, 임원십육지, 서울대학교 영인본
3. 신영훈, 1995,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4. 윤장섭, 1979, 한국과 일본의 민가 건축 비교 고찰, 건축, 6월호
5. 조성기, 1990, 한국민가 연구서설, 대한건축학회지, 3,4월호, p.45
6. 홍만선, 1998, 산림경제 I, II (국역본), 민족문화추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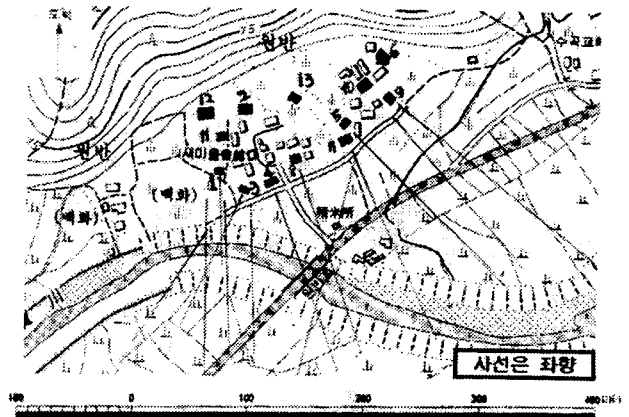
<표 1> 원반 마을 살림집의 좌향

| 구 분 |         |        |        | 비 고  |
|-----|---------|--------|--------|--|
| 좌 위 | 배       | 영덩이    | 기 타    |  |
|     | 9       | 3      | 1      | 뒷산(本山) : 와우형(臥牛形)                          |
| 방 위 | 오향(午向)  | 사향(巳向) | 미향(未向) | 오향 : 방위각165° ~ 195°                        |
|     | 9       | 3      | 1      | 사향 : 방위각135° ~ 165°<br>미향 : 방위각195° ~ 235° |
| 향 위 | 7,8부 능선 | 봉 우 리  |        | *판벽널조립주택                                   |
|     | 12      | 1*     |        |  |

<표 2> 갈마을 마을 살림집의 좌향

| 구 분 |         |         |        | 비 고   |
|-----|---------|---------|--------|---|
| 좌 위 | 머리      | 발       | 기 타    |   |
|     | 18      | 3       | 0      | 뒷산(本山) : 용두음수형(龍頭飲水形)   |
| 방 위 | 오향(午向)  | 사향(巳向)  | 미향(未向) | 오향 : 방위각165° ~ 195°   |
|     | 6       | 11      | 2      | 사향 : 방위각135° ~ 165°<br>진향 : 방위각105° ~ 135°<br>미향 : 방위각195° ~ 235° |
| 향 위 | 7,8부 능선 | 3,4부 능선 | 봉 우 리  | *능선의 골  |
|     | 18(8*)  | 2       | 1      |   |

<그림 1> 원반마을의 좌향을 나타낸 지형도



<그림 2> 갈마을 마을의 좌향을 나타낸 지형도

